



보도시점 2026. 9. 10.(목) 11:00
2026. 9. 11.(금) 조간

배포 2026. 9. 10.(목) 06:00

농식품부, 농업인의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

-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은 한발 앞서 지급, 경영비 부담은 덜어 소득 안정 뒷받침
-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 돕고, 연휴에도 농업 현장은 풍성하고 안전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1일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이 중 농업인이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자금 조기 지원, 신속한 재해복구로 농업인의 풍성한 추석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고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4건의 재해*에 대해 지방정부 및 농협 등을 통한 정밀 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까지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교부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하여 농업인이 풍성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8월 중 발생한 재해 : ▲8.3.~9월 폭염, ▲ 8.28.~9.1. 호우, ▲ 8.28. 강풍피해(부여, 논산), ▲ 8.31. 우박피해(경북 안동, 예천, 의성)

또한 벼 수확기에 앞서 농가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 지급 지원을 추진한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가 계약재배 농가에게 벼 출하 이전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비축미(40만 톤) 중간정산금도 올해 6만 원으로 인상('24~'25년, 4만 원)하여 추진한다.

* 선급금을 지급한 산지유통업체에 차년도 쌀 산업 기여도 평가 가점 부여

②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걱정 없는 추석을 지원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연말까지 지속한다. 또한 최근 환율 하락,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일부 농업용 멀칭필름 계통공급 단가**를 인하하여 공급하는 등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농자재 구입에 따른 영농비 부담도 덜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현행) 3~9월 경유 + 3·4·9월 난방유 → (연장) 10~12월 경유 + 난방유

** 현재 농협 계통 공급단가 대비 평균 11% 인하 완료(4개 업체), 10개 업체 추가 인하 추진(농협 협조)

또한 추석 전후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방제 지원을 지속하고, 영양제, 약제 할인 공급 등 추석 연휴기간에도 농가의 생산 관리를 세심하게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일부지역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영농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강릉, 음성, 구례 등 22개 시·군에서 연휴 기간에도 운영(9.7일 기준)

③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을 안전하게 지킨다.

추석 연휴 전 농촌 관광가는 주간(9.7~9.13)을 운영하여 농촌 방문을 유도하고 농촌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간 농촌 왕진버스를 6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농촌 고령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백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이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수리봉사*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과 농업재해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한다. 9월 중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초기 등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현장 관리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혹시 모를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기간) 8.18~9.11, (지역) 103개 시·군, (기종) 트랙터·콤바인·관리기 등, (참여업체) 대동 등 6개사

아울러, 추석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판로 또한 확대한다. 기존 유통채널을 통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에 우리 농산물을 보다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특별 기획전 및 직거래 장터에서 특판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3대 성수품에 대해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6만 3천 톤) 확대 공급

**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9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은 한발 앞서 챙기고, 경영비 부담은 덜어 수확의 기쁨이 큰 추석을 맞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판로를 넓히는 한편, 연휴에도 농업 현장의 안전과 재해 대응을 빈틈없이 챙겨 농업인을 포함한 모두가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추석맞이 농업인 지원 홍보자료

담당 부서 <총괄>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
		담당자	사무관	류성훈 (044-201-1829)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1-1842)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044-201-2541)
			사무관	박정서 (044-201-2540)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1891)
		담당자	사무관	우현경 (044-201-1424)
			사무관	이학철 (044-201-1892)
			사무관	한소자 (044-201-1840)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1-1717)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최혜림 (044-201-1572)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044-201-1592)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신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조래운 (044-201-2272)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유태선 (044-201-2685)



1 재해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복귀와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추석 전 교부**



· 재해복구비·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신속 지급



· 벼 출하 전
선급금 지급 지원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4만 원 → **6만 원**)

2 유류비부터 농자재까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춥니다.



· 농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9월 → **12월**)



· 일부 농업용 멸칭필름
농협계통 **공급 단가 인하**
(약 **11%**)



·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추가 지원 연말까지 지속



· 농기계임대사업소
연휴에도 운영
(22개 시·군)

3 농업 현장의 안전과 재해 대응은 계속됩니다.



·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9.7.~9.13.)



· 농기계 수리봉사 실시
(8.18.~9.11.)



·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최대 40% 할인



· 농촌 **왕진버스**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
(61개 읍·면 대상)



· 가축방역과 농업재해
대응체계 유지



·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판로 확대

한발 앞선 지급부터 현장 안전관리까지! 농업인의 든든한 추석을 지원합니다.